제1강 플라톤 대화편의 의미

(1교시)

이데아		시뮬라크르
전통 존재론	↔	현대 존재론
플라톤 … 헤겔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하이데거, 들뢰즈, 데리다…
신족		거인족

▶ 존재에 대한 물음

앎과 모름은 일견 모순관계로 보인다. 앎과 모름을 포괄하는 개념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개념들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모순관계를 형성한다. '지식'이라는 말은 이미 '앎'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모순관계는 모순된 존재들 사이의 불연속을 함축한다. 정도의 경우든(높음과 낮음, 흼과 검음, …) 택일의 경우든(남과 여,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 대립은 중간을 허용하거나(정도의 경우) 두 항을 감싸는 동일성의 연속성을 함축한다(택일의 경우). 앎과 모름은 중간항이나 상위의 포괄을 허용하지 않는 모순이다. '無知'는 '知(의 존재)'의 무이다. 그러나 실제 앎과 모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모순관계는 無와 불연속을 함축하며 섞일 수 없다. 섞임은 연속성(아페이론)과 타자화가 가능할 때에만 가능하다. 섞임은 운동이다. 그러나 앎과 모름은 때로 섞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존재'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해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 존재에 관한 숱한 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우리는 '존재'에 대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개념-뿌리들에 있어 그렇다. 모순되는 두 항이 섞여 있다는 것은 묘(妙)하다. 플라톤은 이 묘함을 지적한다.

이방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구려. 하니 그대가 이 '존재'라는 표현으로 무엇을 이해하려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려오? 그대는 분명 그 뜻하는 바에 매우 친숙해 있을 것이고, 사실 우리 자신도 지금껏 그렇다고[친숙해 있다고] 믿어 왔었소. 하나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당혹감에 처해 있소이다. (『소피스테스』 244A)

앎과 모름이 계속 교차할 때 모름이 앎을 누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시 물음을 던지게 된다. "존재란 도대체 무엇일까?"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우리는 존재 앞에서 무지의 고뇌와 사유의 희열을 동시에 느낀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존재 물음의 항구성과 근본성을 토로한다.

먼 옛적에 제기되어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논의될, 늘 우리를 당혹감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물음이 있다: "존재란 무엇인가, 즉 실재란 무엇인가?"(『형이상학』

www.artnstudy.com

1028b 2)

*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물음은 이미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실재에 대한 물음과 동일시하고 있다. 즉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물음을 "**어떤 것**이 참된 존재인가?"라는 물음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존재 물음과 실재 물음은 다르다. 실재 물음은 존재 물음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뒤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2교시)

▶ 대화편의 의미

플라톤의 『소피스테스』는 존재 물음을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는 플라톤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 안에 플라톤은 없다. 이 텍스트에는 '나'(때로는 '우리')로 표현되는 저자=주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이 책에서 플라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다. 플라톤의 저작들은 '대화편들'이라 일컬어진다. 플라톤은 다른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개한다. 이 인물들은 로고스를 통해 투쟁한다. 그리스 역사에서 '지혜'는 정치적 상황에서 출현했다. 인간은 이빨이나 발톱이 아니라 말로써, 로고스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지혜가, 사유가, 철학이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본격적인 사유는 자연철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정치적 지혜에서 시작된 것이다. 로고스와 소피아는 아고라와 함께 성립했다. 대화는 로고스를 무기로 벌어지는 투쟁이다. 진리의 여신 아테네=미네르바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 무장한 채로 뛰쳐나왔다. 진리의 여신은 곧 무(武)의 여신이기도 한 것이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로고스와 로고스가 서로 부딪치면서 벌어지는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를 그리고 있다.

'드라마'는 사건, 상황을 뜻한다. 그리스에서 드라마는 큰 사건과 더불어, 즉 페르시아 전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드라마에는 인물들이 등장하며, 대사가 있고, 무대 장식과 음악, … 등이 있다. 플라톤의 드라마는 사유하기 위한 드라마, 사유의 여정을 그린 드라마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소리와 색깔을, 인격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트라쉬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치열하면서도 코믹한 대결,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긴박감 넘치는 만남, 『향연』의 그 활기차면서도 아름다운 열변들, 『파이드로스』 도입부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풍광(風光)에 대한 인상 깊은 묘사, …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플라톤 사유의 반쪽을 놓치게 될 것이다. 플라톤의 드라마들은 곧 사건들, 상황들이다. 그것은 고유명사를 가진 개별 인물들 – 대부분 실존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 – 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만나 나눈 대화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젊은 시절 썼다고 하는 드라마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방식의 산문들을 시도했을 때, 철학은 그 내용에서만이 아니라 형식에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때로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이전에 있었던 대화를 통째로 전달해 주는 형식을 취한다.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밴디스 여신의 축제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트라쉬마코스, 글라

www.artnstudy.com

우콘, 아데이만토스 등과 만나 나누었던 대화를 그 다음날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파이돈』에서 파이돈은 엘리스로 돌아가던 길에 아케크라테스를 비롯한 퓌타고라스 학도들을 만나 소크라테스가 그 최후의 순간에 케베스, 심미아스, … 등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 복잡한 대화 내용을 이렇게 통째로 들려주는 것은 곧 놀라운 기억력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모두 외워서 들려주는 시인의 역할을 상기시킨다. 철학과 폴리스를 위해 전통적인 시가(詩歌)들(호메로스, 헤시오도스의 서사시들과 -7세기의 서정시인들)과 (당대에 몹시 타락했던) 드라마를 탄핵했던 플라톤이었지만, 그 자신은 위대한 시인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 온 호메로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나를 가로막지만 […] 한 개인이 진리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기에"(『국가』 195C) 같은 미묘한 구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런 식의 태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에서도 반복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6a) 플라톤은 분명 (젊은 시절 심취했다가 철학에 입문하면서 내버렸다고 전해지는) 드라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대화편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플라톤의 로고스는 뮈토스와 뒤섞여 있다.

그러나 대화편이라는 형식에는 간단히 풀기 힘든 긴장이 놓여 있다. 논쟁이 로고스를 통한 투쟁이라면, 거기에는 강렬한 외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논쟁에는 늘 개인적 기질, 상황/분위기의 미묘함, 감정의 돌발, 기억에서의 얽힘, … 등 많은 우발성들이 개입한다. 대부분의 대화들이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이런 외부성들을 내부성으로 거두어 정돈한다. 철학의 정연(整然)한 논변을 위해 외부성들은 제거되며 모든 갈등과 대립은 플라톤의 사유에 녹아들어 그 들러리 역할로 전락한다. 트라쉬마코스의 날카로운 논변들은 논쟁이 진행되면서 점차 플라톤의 사유 속으로 굴복해 들어간다.(『국가』 1권) 그래서 종종 대화편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우스에 맹세커니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 빠진 대사로 일관된다. 이런 대사들은 플라톤의 논변이 한 단계씩 건너가게 해 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 이런 대목들에서는 드라마는 위축되고 철학적 논변만이 정치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때로 드라마적 요소가 너무 많아 철학서로서는 잡설(雜說)이 너무 길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대화편들에서 드라마와 철학은 절묘하게 결합하지만 때로는 균형을 잃고 삐걱거린다. 결국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은 정밀한 논변의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각각의 발걸음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동의/승인과 논박, 재설명, 우회를 비롯한 여러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 절차들은 드라마의 형식으로 꾸며진다. 논변은 대화편의 뼈대를 구성하며 드라마는 그 살과 피를 구성한다.
플라톤 대화편이 외부성을 내부화하고 있다 해도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플라톤은 대화 상황에 함축되어 있는 외부성을 그 극한에까지 펼쳐 보여준다. 논변은 간단하게 내부화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플라톤은 '플라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대화편들은 일방적인 내부화나 매끈한 건축술로 간단히 규정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다.

* 지젝은 플라톤의 저작들은 의견들의 대칭적인 교환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가 '대화편들'을 쓴 것은 철학사상 가장 큰 아이러니일 것이라고 말한다.(Zizek, *Organs without bodies*, Routledge, 2004, p. ix) 가라타니 고진은, 충분한 검토 없이, 플라톤주의를 '건축에의 의지'로 특징짓고 있다. (柄谷行人, 『은유로서의 건축』, 김재희 옮김, 한나래, 1995, 1장)

말미에 가서 김이 빠진다 해도, 트라쉬마코스와 소크라테스는 긴박감 있게 밀고 당기면서

www.artnstudy.com

논변을 전개시킨다. 『국가』의 2권은 플라톤 자신에 대한 가능한 논박을 충분히 펼쳐 보인다. 『프로타고라스』에서 자신의 생각을 유려하게 펼치는 프로타고라스는 결코 허수아비가 아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데아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한다. 『에우튀프론』을 채우고 있는 에우튀프론의 아둔한 논리들은 아마 실제에 가까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내부화된 변증법이지만, 그것은 외부들을 최대한 살리고 있는 변증법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접근할 것이다.

www.artnstudy.com